Digital & IT

'3D 열풍'

삼성전자 3DTV

LG전자 3DTV

'아바타'바람… TV도 경쟁 불 붙었다

삼성·LG전자 안방선점… 내달 입체영상제품 출시

국내 영화 3D제작·위성방송업계 시범서비스 채비

영화 '아바타'가 국내에서만 1천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3D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TV와 채널사업자, 국내 영화업계 등에서 앞다퉈 3D 방식을 도입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방시장 공략하는 TV업계 각축=아바타의 돌풍이 안방시장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다음달부터는 국내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다양한 3D TV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께 국내외에 능동형 안경(순간적으로 셔터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입체 영상을 보여 줌) 방식의 3D TV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도 4월께부터 같은 방식의 3D TV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앞서 지난해 7월 수동형 안경(필터를 안경 위에 붙여 3D 화면을 구현) 방식의 3D LCD TV를 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니와 샤프, 파나소닉 등도 올해 여름 세계 주요 시장에 3D TV를 출시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도 손쉽게 3D 영상을 즐기게 된 것이다.

안경을 쓰지 않고도 3D 영상을 볼 수 있는 제품은 나왔지만 특정 지점에서만 3D 영상으로 인식되는 단점이 있어 최소 2~3년의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ESPN 등 3D방송시작…국내영화도 3D상영=3D TV가 조만간 시판될 예정이지만 당장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D 콘텐츠의 대부분은 DVD로 출시된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이다.

하지만 TV프로그램을 3D화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6월 남아공 월드컵에 맞춰 3D 방송 전문채널인 'ESPN 3D'를 신설, 3D 입체영상 방송을 시작한다. 첫 서비스는 6월11일 남아공과 멕시코 간 월드컵 축구 경기 중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SPN은 이번 월드컵 경기 중 최대 25게임을 3D로 중계할 계획이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24시간 3D 채널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2시간짜리 3D 영상을 반복해서 틀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매월 1시간씩 방송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는 해외 3D 제작 관련 업체들과 제휴하는 한편 국내 제작업체들과도 손을 잡고 콘텐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도 3D 영상을 주문형비디오(VOD)로 볼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올리브스튜디오는 EBS에서 제작·방영한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을 3D로 제작하는 등 기존 2D 콘텐츠를 3D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영화 '아바타'의 성공으로 국내 영화업계도 3D 영화제작에 나서고 있다. 연평해전을 다룬 곽경택 감독의 신작 '아름다운 우리'와 석유시추선 안에서 괴물과의 사투를 그린 윤제균 감독, 하지원 주연의 '제7광구' 등이 3D로 제작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편, 3D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최초의 완전 고화질급(Full HD) 지상파 3D TV 실험방송을 내년 10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비해 오는 10월 말쯤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을 통해 3D 실험방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보해 매취순, 와인 본고장 공략

창립 60주년맞아 佛·中 등 해외시장 개척

보해양조(주)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표 상품인 '매취순'으로 중국과 프랑스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임건우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17일 목포 본사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복분자주가 동양의 대표 와인으로 자리잡은 만큼 올해는 매취순이 외국인들의 식탁에 오르도록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주 한인 사회와 외국인들이 생선회와 동양 음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맞춰 매실주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창업주인 고 임광행 회장이 1950년 목포시 대안동에 설립한 보해양조는 업계 최초로 무사카린 소주, 프리미엄 소주를 출시하고 매실주, 복분자주를 대중화 시키는 등 전문 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보해는 지난해 복분자주, 매취순의 수출 호조 등을 바탕으로 수출실적 300만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 과실주·리큐르 수출량의 80% 이상으로, 5년 연속 과실주·리큐르 수출 국내 1위를 지켰다고 보해측은 밝혔다.

보해는 지난 1994년부터 일본 아사히 맥주와 공동 개발한 소주 '비단'과 '호카이'를 연간 100만 상자(700㎖·12개 들이)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임 회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토대로 '품질 제일주의' 경영을 펼쳐 고객에게 보답할 것"이라며 "고객 서비스 1위 기업,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휴가보상금으로 일자리 나누기

연차 의무사용 발생 3억원

100명 3개월간 인턴 채용

광주은행이 올해 청년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확대한다.

광주은행은 17일 "광주·전남지역 대학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 100명을 채용해 3개월 과정의 '광은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70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 인원을 늘렸다.

재원은 임·직원들의 연차휴가 의무사용으로 발생한 보상금 3억여원이다.

노·사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갖고 청년층과 일자리도 나누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턴채용은 18일~24일까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인턴사원에게는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인턴십 평가 우수자는 직원 채용 때 우대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이번 인턴채용 이외에도 지역대학 및 노동청과 연계해 졸업을 앞둔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현장 실습과정'과 '청년 직장체험' 등의 과정을 통해 올해 총 300명 수준의 인턴십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직장인 5명 중 1명은 '투잡족'

인크루트 1,074명 대상 조사

직장인 5명 중 1명은 부업을 가진 '투잡족(Two-Job 族)'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최근 직장인 1천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8.2%가 부업을 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투잡족 비율은 2008년 조사에선 12.9%, 지난해는 15.5%로 파악돼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업을 하는 이유로는 주 수입원의 보충 수단이라는 답변이 49.2%로 가장 많았으나 자기계발(12.3%), 창업준비(11.3%), 퇴직 대비(10.3%), 취미·여가활동(7.2%) 등을 꼽은 답변도 적지 않았다.

부업을 통해 얻는 수입 수준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35.9%가 주 수입의 11~20% 수준이라고 답했지만 부업으로 주 수입의 51~60%를 번다는 사람도 8.2%나 됐다.

/연합뉴스